

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

檢, ‘경도인지장애’ 김백준에 27일간 22회 ‘잠 안 재우기’ 법원, 병원 치매 진료기록 확인 변호인단 요청 외면 “증인 김백준 조사 마다 진술 바뀌어… 정상 진술 아냐”

[강훈의 MB법정일기 ⑤]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요.”

김백준의 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MB는 늘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이 같이 말했다. 여전히 김백준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실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조사할 때마다 진술이 뒤바뀌는가 하면, 심지어 같은 조사에서 감사의 같은 질문에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진술들이다.

다스 소송비용 처리와 관련해 2008년 3~4월께 김석찬이 MB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의 내용도 마찬가지로였다.

김백준은 크게 세 가지 취지의 서로 다른 진술을 번갈아가며 했다. ▲미국 로펌 ‘에이킨컴프’가 다스 소송을 무료로 해줬다는 내용 ▲초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다스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다가 2009년부터 삼성에서 지원했다는 내용 ▲그리고 처음부터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진술이다.

같은 날 조사에서도 이 같은 서로 다른 진술이 오락가락 번갈아 나오는 상황이라면, 김백준 진술의 신빙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김백준의 이 세 가지 진술 중 마지막 것, 즉 처음부터 삼성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채택해 MB를 기소했다. 김백준의 말을 믿고 현대자동차를 압수색했으니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위의 세 가지 진술 모두 허위임이 입증됐다. 앞의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백준은 2008년 9월까지 에이킨컴프가 다스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몰랐고, 따라서 2008년 3~4월께 다스 소송비용 처리 관련 보고를 MB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백준의 경우처럼 구속수감되어 다른 이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 검찰이 원하는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별건수사로 구속돼 가혹수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판례(대법원 2020.10.8. 선고 2001도3931 판결)는 이미 존재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김백준 치매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수사 이후 병원 진료기록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한편, 또한 가혹수사를 통해 나온 김백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각종 판례를 들어 재판부에 피력했다. 검찰은 김백준 병원 진료기록 열람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진료 기록에는 병원명이 적혀 있어 진료기록 열람 시 MB 측 인사들이 병원을 찾아 김백준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변호인단은 병원명을 지우고 진단 내용만 열람하자고 맞섰다. 그런데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김백준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황당했다. 김백준의 정신건강 상태는 병원에 진료기록만 요청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절차를 외면하고 재판부는 스스로 김백준의 치매를 진단하고 나선 것이다. 나도 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판사가 의료 진단까지 한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봤다.

별건구속 및 가혹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백준 조사 시 변호인을 대동했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백준 소환의 횟수와 빈도, 조사 내용 및 시간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보다, 검찰의 주관적인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강훈 변호사

약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시장경제신문 meconomynews.com		회사명 에이앤에프 코리아	
발행인 유지원		편집인 서진기	청소년보호책임자 전동식
대표전화 02-6919-7032		(우) 04527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3층 (단암빌딩)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등록번호 서울 다 10279		등록년월일 2011년 8월 23일	간별 주간
인쇄인 및 발행소 동아인앤디 /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 02-2020-17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스타 SNS



김제덕

kim_je_deok_0412 ● ● 팔로워

kim_je_deok_0412 ● 2020 도쿄올림픽 내 자신이 8년간 양궁을하면서 처음으로 나 가게된 올림픽이었다 도쿄 올림픽의 목표는 남자 단체전 우승이지만 보고 올랐던 것만 유대이었지만 출전 단체전 경기로 출전하여 영광의 무대에서 물결을 쓰게 되었다 욕심부리지 않고 자신있게 오자라는 마음으로 결과는 자에게 맡기고 나는 노력만하면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올림픽이 기쁘다 결과는 아주 좋았었다 남자 단체전은 물론 출전 단체전까지 금메달을 가져올수있었다는게 너무 영광이고 아직도 나의 꿈,목표가 남아있기때문에 꿈과 목표를 한발짝 나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남은 국제대회 국내대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단다 이번 선수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모습으로 도쿄 올림픽 이후에 있는 대회에서 자신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펼칠것으로 결정함 부부 여직원 모두 감사인사드립니다 ~~~~~ (기타의...) (기타의...)

좋아요 258,015개



안산

ssaaaaan_22 ● ● 팔로워

ssaaaaan_22 ● 응원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단체전 우승이라는 목표만 가지고 가면 도쿄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대한민국에 안겨드릴 수 있을 예정입니다. 출발하기 전 연습의 부담을 내려놓고 세계 최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이 마지막을 잘 드러낼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축하할 뻔했던 제가 늦게까지 직접 대상이 된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쾌하고 좋아하면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올림픽 준비부터 힘과 도움이 되어주신 협회분들, 저를 가르쳐주셨던 지도자 선생님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고, 저까지 시스117. 안산

좋아요 570,349개



오진혁

ohjinhyek ● ● 팔로워

ohjinhyek Comeback Home o 아빠포왔다

2주

s.w.o 우형 ㅋㅋㅋㅋ 아가를 너무 귀여워요 ㅋㅋㅋㅋ 아가를 아빤가 위해 한 사랑이랑 없게ㅋㅋㅋㅋ

2주 올해와 2016년 달달 달기

lee_achieve1020 을 이라외지실때 너무너무 멋있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게 저가올라올 행복하세용

2주 올해와 2016년 달달 달기

ksoc_official 모두가 같이하고 할 때, 정상에서 끝을 외친 #오진혁 선수, 고

좋아요 19,665개

2021 신축년(辛丑年) 9월의 띠별 운세

사주역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오래 끌기보다는 빠른 결정이 좋을 것이다. 한번 옳다고 생각한 것은 두번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밀어붙쳐 실행으로 옮겨라. 체면치레보다는 실속을 먼저 챙겨야 한다. 60년생 창의력을 발휘해야 발전이 있다.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대결해야 한다. 72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잘 살펴라. 사이가 좁아지면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소(축, 丑)

쉽게 생각하지 마라. 세심하고 꼼꼼함이 필요하다.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는건 한순간이다. 지금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니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61년생 마음 한 칸이 묵직해오는 것이 느껴진다. 73년생 부족한 것은 없는데 한번 더 살펴봐라.



호랑이(인, 寅)

스스로에게 상을 줄때이다.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 것도 좋고 휴식도 좋다. 실패 실패 알아야 일할때 일할수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라. 62년생 열심히 일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 는 하루다. 74년생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이 큰 힘이 되어준다.



토끼(묘, 卯)

시작이 좋는데 어찌 끝이 나쁠 수 있을까. 기본 좋게 시작한 일들이 기본 좋게 마무리 된다. 평소보다 조금더 기본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충분히 즐겨줘야 여유를 만끽하라. 63년생 노력과 정성을 들인 것에 비해 얻는 것이 적겠다. 75년생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자신의 가족 문제만큼은 못 참으니 언급을 피해야 한다.



용(진, 辰)

마음을 열려라. 진정한 대항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상태를 이해한다면 상대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64년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천스가 다가온다. 76년생 쓸데없는 미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뱀(사, 巳)

주위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 할 수 있다. 그간 대인관계에 노력해 온 결과 일 것이다. 인연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65년생 그동안 쌓아온 인연관계와 정이 큰 힘이 되어준다. 77년생 자꾸 부딪치는 일이 생기기 두문불출이 최고의 방법이다.



말(오, 午)

민감한 시기이다.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라. 실은 소리 하고 싸워버야 감정 상하고 득될 것이 없다. 66년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게 된다. 78년생 고된 한 일을 단칼에 해결한다. 자신감이 붙으면서 추진력도 생긴다.



양(미, 未)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는 일이라면 주위의 협조를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괜한 고집으로 일을 망치지 마라. 67년생 집안이나 주변의 환경을 좀 더 넓게 만들어라. 길한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79년생 적극적인 구해에 적절히 선행해 옮겨보라. 상대가 받아줄 것이다.



원숭이(신, 申)

힘들다고 느낄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 않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또한 자-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편해서 성과가 있다. 68년생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일을 추진할 때, 아찔이 크겠다. 80년생 힘들 때에 뭔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수 있겠다.



닭(유, 酉)

배풀어라.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 가는 것이 있다면 오는 것이 있는 법이다. 먼저 연락하여 안부라도 전한다면 좋은 것이다. 결과도 좋아 있을 것이다. 69년생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이다. 81년생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방해가 될 뿐이니 혼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개(술, 戌)

자나친 자신감은 경솔한 행동을 불러오기 쉽다. 나의 생각, 행동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행동한다면 좋을 것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욱 중시하라. 70년생 바이오리들이 일치하니 기본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82년생 필요 없는 계획으로 귀한 시간만 소비할 수 있다.



돼지(해, 亥)

자기가 힘든 약속은 하지 마라. 괜히 신뢰만 잃게 된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유부단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보낸다. 71년생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 또한 지극히라. 83년생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